



# 트럼프 트레이드와 일본의 저금리 지속 우려<sup>1)</sup>

이해랑 연구원

여약

미국의 경기부양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초저금리 환경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저금리 지속 우려는 일본 생명보험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쳐 4월 일본 생명보험 주가는 3월 대비 20% 이상 하락함. 초저금리에 대한 대응으로 보험요율을 인상하고 최저보증금리를 인하한 바가 있는 일본 생명보험산업에 미국의 경기부양 기대감 약화는 불안요소임

■ 최근 미국 정부의 기업 친화적 감세정책, 규제 철폐, 인프라 관련 정부지출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음

- 3월 2일 공화당의 반대로 트럼프 케어<sup>2)</sup>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미국 변동성지수 (VIX)<sup>3)</sup>는 작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13을 넘는 등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지난 3월 8일 2.6%까지 상승하였으나 4월 둘째 주 2.2~2.3%대로 하락하였음

■ 경기부양 기대감 약화로 저금리 지속 우려가 증폭되면서,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4월 중순 주가는 지난달 대비 20% 이상 하락함<sup>4)</sup>

- 경기부양 기대감 약화와 더불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달러 강세 언급으로 일본은 저금리 지속 불안감이 더욱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2월 0.15%까지 상승했던 일본 10년 국채 수익률은 4월 13일 0.005%까지 하락함.
- 엔고와 금리 하락으로 다이이치 생명은 4월 중순 시가총액이 3월 중순에 비하여 22%가 하락하였음

1)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을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칭함  
 2) 기존 헬스케어 법안의 핵심인 건강보험의무가입조항을 삭제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법안임  
 3) 변동성지수는 뉴욕증시인 S&P 500의 옵션 가격을 반영한 지수로 변동성 지수가 오르면 시장 변동성도 커졌음을 의미함  
 4) Wallstreet Journal(2017. 4. 13), "Life Drains From Japanese Insurers as Trump Trade Fades"

며, 동기간 T&D홀딩스, 소니파이낸셜홀딩스 등 상장한 생명보험회사도 각각 20%, 19% 하락함

#### ■ 일본 생명보험산업은 초저금리 환경에 대한 다양한 조치를 이미 실행하고 있음

- 2017년 초 일본 금융청(FSA)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초저금리로 인한 생명보험회사 수익률 악화를 우려하여 생명보험회사의 예정이율을 현행 1%에서 0.25%까지 인하한다고 발표함<sup>5)</sup>
  - 최근 발표된 2016년 상반기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간 대비 15.5% 감소한 6,720억 엔(약 6조 7천억 원)이었으며, 수입보험료도 8.7% 감소한 15조 4천억 엔(약 154조 원)을 기록함
- 이러한 규제에 따라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은 보험요율을 인상하고 최저보증금리를 내리고 있음
  - 니폰생명은 2017년 4월 1일 종신보험, 연금, 교육보험, 장기요양상품, CI보험 등의 월납보험요율을 3.6%에서 27.3%로 인상하였으며, 최저보증금리는 1.15~1.35에서 0.75~0.90%로 인하함<sup>6)</sup>
  - 아사히 생명은 2016년에 이미 종신보험과 교육보험의 최저보증금리를 각각 1.15%와 1%에서 0.3%와 0.25%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종신보험, 교육보험, CI보험의 보험요율은 3.6%에서 10%로 인상함
  - 또한 초저금리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2016년 4월부터 일부 생명보험회사들은 일시납 저축성 상품 판매 중단을 확대하고 있음<sup>7)</sup>

#### ■ 미국의 경기부양 기대감 약화는 일본 생명보험산업에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4월 말 트럼프의 세제개편안<sup>8)</sup>이 통과되었으나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책 시행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일본 생명보험회사는 현재의 초저금리 환경에 대한 조치를 지속하며 향후 세계 금리 변동과 트럼프 정책을 주시하고 있음 **kiri**

5) A.M. Best(2017. 3. 7), "Japan's Life Insurers React to Tougher Environment With Various Measures"

6) Nikkei Asian Review(2017. 2. 2), "Nippon Life to raise annuity premiums"

7) 보험연구원(2016. 9. 5), 「일본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 생명보험 상품포트폴리오에 미친 영향」

8) 미국의 연방 법인세율은 현행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며,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은 39.6%에서 35%로 낮춘다는 내용임